(729)

조 선

주체 106 (2017) 4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김 정 은

차 례

표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근로자들 사진 김금진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민족의 어버이, 인류의 태양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불세출의 전설적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탁월한 사상과 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으로 현대조선의 력사를 빛나게 개척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어버이,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지난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 전반기에 렬강들의 리권쟁탈의 흥정판으로 되여 망국의 치욕까지 겪어야 했던 조선은 민족사적사변으로 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과 더불어 오늘과 같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태양절을 맞는 이 시각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한없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글 최광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민족재생의 은인

만민이 우러르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1912)년 4월 15일 평양시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속에서 신음하던 조선인민에게 민족재생의 희망을 안겨준 력사의 해돋이였다.

대대로 애국, 애족, 애민의 가풍을 굳세게 이어오는 가정에서 특출한 슬기와 예지, 뜨거운 인간애를 천품으로 지니고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모님들의 혁명적영향과 자신의 꾸준한 탐구, 모순에 찬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체험과 그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을 통하여 10대의 나이에 벌써 투철한 반제자주정신과 견결한 계급적립장, 과학적인 통찰력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체현한 혁명의 령도자로서의 풍모를 갖추시였다.

주체15(1926)년 10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 혁명활동을 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선군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총대로 조국해방을 이룩하실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조선의 첫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시여 일제와의 결전을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항일혁명투쟁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가장 옳은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모든것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발톱까지 무장한 침략자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할데 대한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제시하시고 무장투쟁의 전 과정에 일관하게 견지하시였으며 유격전의 새로운 전략전술적원칙과 전법들을 창조하고 발전풍부화시키시면서 일제와의 피어린 전투들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뒤줄 가운데 서계시는분)

주체21(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창건 당시의 기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는 종국적으로 무너지고 마침내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을 맞이하게 되였다.

해방의 기쁨안고 떨쳐나선 인민들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0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믿음으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단합을 이룩하시고 대해같은 도량으로 전체 조선인민을 반일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시여 항일전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재생의 은인, 조국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암담한 나날속에서도 밝아오는 래일을 굳게 확신하고 끝까지 싸워 마침내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력사적순간을 맞이할수 있었다.

민족을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구원해주시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길이 빛날것이다.

글 최광호

토지개혁법령, 로동법령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들이 실시되여 근로하는 인민들이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 되였다.

정규적혁명무력이 건설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년 7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자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조선인민군은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남반부의 광활한 지역을 해방하였다.

모범전투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6월

갱도작업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10월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백수십년의 침략력사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는 미국의 주도하에 15개 추종국가군대와 남조선괴뢰군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동원된 이 전쟁은 조선인민에게 있어 참으로 준엄한 판가리결전이였다.

당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지 불과 5년밖에 안되였던 조선은 군사 및 경제적잠재력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3년간의 가렬처절한 전쟁에서 승리자는 다름아닌 조선인민이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기 위한 전대미문의 영웅적항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독창적인 군사전법으로 전쟁의 전 행정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전쟁의 첫 시기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하여 독특하고 정연한 전시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시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꾸리시여 전쟁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전기간 언제나 군사정치정세와 그 발전추이,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적의 행동성격, 전선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전쟁의 전략적단계들을 과학적으로 설정하시고 매 계단에서 수행하여야 할 가장 정당한 전략전술적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정확한 과업들을 명철하게 밝히시였으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과 주체적인 전략전술,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수적, 기술적으로 비할바없이 우세한 침략자들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고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히 깨뜨려버리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주체적인 군사외교전으로 전쟁승리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시고 적들의 《영예로운 정전》기도를 분쇄하시였으며 미제의 원자탄사용책동을 파탄시키심으로써 인류의 핵참화를 막고 아시아와 세계인민들을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는 불멸의 공헌을 이룩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인류해방투쟁사에 세세년년 길이 빛날것이다.

글 김필

조선인민은 주체42(1953)년 7월 27일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쳐부시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검덕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0(1961)년 4월

언제나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지 2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조선인민은 예나 변함없이 그이를 《우리 수령님》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고있다.

이 부름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분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숭고한 한평생이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당도 정권도 군대도 건설하시였고 경제와 문화도 철저히 인민의 행복을 위해 복무하는것으로 발전시키시였다.

두차례의 혁명전쟁,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두차례의 복구건설, 여러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장구한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방침들, 조선에서 작성공포된 모든 법령들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일관되여있다.

인민을 제일로 여기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수령으로 모시였기에 조선에서는 해방(1945. 8. 15.)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 의정으로 연필생산문제가 상정되고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의 가렬한 나날에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다.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보육교양, 사회보험제 및 사회보장제, 정휴양제, 국가부담에 의한 학교와 병원,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은 어느것이나 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헌신적복무와 잇닿아있다.

인민들이 눈을 맞으면 자신도 눈을 맞아야 한다시며 우산을 펴지 못하게 하신 이야기, 잠시라도 쉬시기를 바라며 인민들이 지어드린 휴식각을 허물도록 하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의 겸허한 풍모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다.

저택의 정원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시고 농사를 지으시며 닭도 기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소박한 생활속에서 주체농법이 마련되였으며 온 나라를 백화만발한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원대한 구상이 펼쳐졌다.

평양대극장과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대안전기공장을 찾으시여 로동자들의 식생활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0(1961)년 12월

장강군 향하리의 한 농가를 찾으시여 살림형편을 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8(1969)년 7월

옥류관을 비롯하여 나라의 명당자리들에 솟아오른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인민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의 한생을 길이 전하는 력사의 증견물들이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혁명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도건설에 참가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작업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6(1957)년 6월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에서 새로 만든 내연기관차 《금성》호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4(1975)년 5월

수도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1(1982)년 11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을 찾는 헌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무려 8 650여일에 걸쳐 2만 600여개의 단위를 찾고찾으시며 장장 57만 8 000여km에 달하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눈비를 맞으시고 무더위와 강추위도 겪으시며 그이께서 조국땅 방방곡곡으로 쉬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길은 명절날과 일요일 지어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탄생일에도 계속되였다.

로동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기름묻은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농촌에 가면 밭머리에서 농민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였으며 어린이와 이야기할 때에는 어린이의 심정이 되여주시고 로인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친구가 되여주시며 다심한 어머니와도 같이 사람들의 속생각까지 다 헤아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다 바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글 정기상

2. 8비날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0(1961)년 10월

청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6(1987)년 9월

김만유병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5(1986)년 6월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를 타시고 평양시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1(1972)년 4월

남조선의 전국민족민주운동련합 고문인 문익환목사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8(1989)년 3월

넓은 포용력을 지니시고

하나의 조선, 통일된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려는 조선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안으시고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경륜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없이 넓은 포용력으로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조선인민은 지난 세기 40년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그때로부터 세기를 두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강요당하고있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빼앗긴 나라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새 조국건설로 분망하신 속에서도 분렬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주체37(1948)년 4월에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신것을 비롯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호소는 온 겨레의 마음을 통일열기로 뜨겁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을 지니시고 그가 누구이든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그리고 지난날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민족의 편에 돌아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시고 관용으로 대해주시며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주체78(1989)년 봄에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의 전국민족민주운동련합(전민련) 고문인 문익환목사일행을 통일의 사절로 뜨겁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과 남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앉아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풀릴수 있다, 문선생과 이렇게 두번 만나니 벌써 동지가 되고 서로 걸리는 문제가 없는것처럼 서로 모여앉아 토론하는것이 중요하다, 나는 조국을 통일하는 일이라면 그에 무조건 복종한다고 하신 그날의 교시는 문목사일행만이 아니라 온 겨레에게 하시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선언이기도 하였다.

통일애국의 길에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워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포용력으로 하여 해방직후 이름난 반공분자였던 김구를 비롯한 남조선의 수많은 인사들이 북행길에 올라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주체61(1972)년 5월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찾아온 남측대표는 수상님께서 하신 모든 교시는 참으로 지당하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초로 삼고 나아가겠다고 하였다.

남조선에서 군부와 정계의 요직에 있다가 해외로 망명한 최덕신, 최홍희와 같은 반공정객들과 고령의 김성락목사, 윤이상작곡가를 비롯하여 각이한 정견과 신앙, 직업과 경력을 가진 수많은 통일사절들이 평양을 찾아옴으로써 범동포적인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

조국통일은 인민들에게 안겨줄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시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위업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글 최영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4월

해외동포음악가 윤이상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6(1987)년 10월

온 민족이 조국통일열기로 들끓고있다.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 참가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6(1987)년 6월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20세기는 지나갔어도 오늘도 지구의에 새겨져 빛을 뿌리는 불멸의 행로가 있다.

무변광대한 지구를 따라 끝없이 뻗어간 52만 2 000㎞에 달하는 연장거리, 그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해 바치신 헌신의 행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가야 하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중화대지와 광활한 씨비리에로, 동유럽과 아프리카에로 대외활동의 자욱을 수놓아가시였다.

주체34(1945)년부터 주체83(1994)년 7월까지 106차에 걸쳐 16개 나라를 방문하시였을뿐아니라 136개 나라의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당수 400여명을 비롯하여 연 7만여명의 외국손님들을 접견하시면서 정력적으로 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대외활동의 갈피갈피마다에는 1940년대 후반기 중국인민의 동북해방작전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국경너머 단동에까지 가시여 정세역전의 방도를 가르쳐주신 전선길도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과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을 힘있게 추동한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력사적인 장거도 수놓아져있다.

미제에게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데 있다는 세계혁명의 기본전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 발전도상나라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종말》에 대해 떠들고있던 지난세기 90년대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모택동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4(1975)년 4월

엘. 이. 브레쥬네브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9(1980)년 5월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과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5(1986)년 3월

세계평화수뇌자리사회 성원들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81(1992)년 4월

무너진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하며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있지만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여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5대륙을 진감한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사회주의리념에 먹칠을 하던 반혁명적사상조류의 흙탕물이 가셔지고 사회주의운동이 재생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이 위력한 반제자주력량으로 장성강화되고 온 세계의 자주화가 힘있게 추진되였다.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수놓아오신 불멸의 행로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주시대의 태양, 인류해방의 구성으로 영생하고계신다.

글 김태현

조선을 방문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6(1977)년 8월

일본의 가네마루 싱과 다나베 마꼬도를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9(1990)년 9월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83(1994)년 6월

외국방문의 길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인도네시아공화국 수카르노대통령이 올리는 **김일성**화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4(1965)년 4월

세계인류의 다함없는 흠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70성상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것으로 하여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를 받으시였다.

주체54(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이름난 식물원에 모신 수카르노대통령은 아름다운 한떨기의 꽃을 그이께 보여드리며 꽃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려한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꽃에까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을것 같다고 사양하시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각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이미 많은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니 응당 높은 영광을 지니셔야 합니다.》라고 절절히 말하였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이렇게 세상에 태여나 위인칭송의 꽃으로 온 세상에 만발하고있다.

이전 쏘련의 국가지도자 쓰딸린은 주체39(1950)년 10월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과 안녕보장을 위하여 신형방탄승용차를 특별히 마련하여 그이께 드리였으며 주체45(1956)년 10월 웰남의 호지명주석은 군복을 입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형상한 작품을 선물로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모신 금부각상, 99마리의 나비들이 모두 평양을 향해 날아드는 모습을 형상한 나비공예 《조선지도》…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는 세계 5대륙의 인민들은 뜨거운 지성을 담아 그이께 수많은 선물들을 드리였다.

세계 7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들, 30여개의 도시와 20여개의 대학들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력사발전의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수많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드리였다.

이전 쏘련의 적기훈장과 대일전승메달, 꾸바의 최고훈장인 호쎄마르띠훈장과 쁠라야 히론훈장, 웰남의 최고훈장인 금별훈장 등 그이께서 받으신 훈장과 메달들에는 한세대에 미일두제국주의를 타승하시였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세계자주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신 그이에 대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칭송의 마음이 어리여있다.

미국의 켄징톤종합대학에서 국제관계학명예박사칭호를 드린것을 비롯하여 세계의 이름난 대학들과 도시들에서는 그이께 명예교수, 명예박사칭호를 드리였으며 명예시민, 명예지도자, 명예위원장으로 모시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진보적인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유리공예 《태양》과 《붉은 태양》을 비롯한 선물들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엘 매디 벤 바르까》련대성훈장, 《태양의 족장》칭호 등 많은 훈장, 메달, 명예칭호들을 드리였다.

세계의 벗들은 《지구의 가장 높은 곳에 **김일성**주석의 위훈을 전하는 금자탑을 세우고 지구의 중심에는 주석의 동상과 그분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대혁명박물관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격찬하였다.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는 그이께서 력사에 남기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위인칭송기념비로서 세기와 세기를 넘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글 김선경

조선에서는 해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인 태양절을 맞으며 **김일성**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태여난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식물원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은 외국의 벗들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쟈왕국 국왕이 올리는 선물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83(1994)년 4월

또도르 쥡꼬브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으로부터
메달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4(1975)년 6월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세계 5대륙의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린 선물들이 전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세계 7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들, 30여개의 도시와 20여개의 대학들에서 수많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드리였다.

금수산태양궁전 훈장보존실의 일부

인민군군인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5(1966)년 2월

구분대군인들의 랑만에 넘친 예술소품공연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5(2006)년 8월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영웅적조선인민군이 걸어온 85년의 영광스러운 로정의 갈피갈피마다에는 병사들에 대한 위대한 선군령장들의 어버이사랑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주체21(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피어린 15성상 언제나 대원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믿음을 주시고 정을 주시여 어엿한 혁명가로 불굴의 투사로 키우시였다.

전투와 행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항일전의 나날 자기 이름 석자도 쓸줄 모르는 대원들에게 글을 배워주시고 한홉의 미시가루도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면서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같은 인간애,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는 그대로 유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죽어도 변치않는 혁명신념으로 간직되여 항일대전의 승리를 안아오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의 준엄한 시기에도 싸우는 고지의 인민군부대들에 전투명령보다 먼저 인민군전사들 한사람한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고 혁명전우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줄데 대한 사랑의 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인민군전사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여주지 말라!》라고 웨치며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위대한 전승을 안아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병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안으시고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 병사들은 최고사령관과 전사라는 상하관계를 훨씬 초월한 사상과 뜻, 정으로 뗄수 없이 련결된 혁명동지들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병사들이 있는 곳이면 험준한 철령과 오성산의 칼벼랑길도 가리지 않고 넘으시였고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최전방초소들과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치시며 섬초소들도 찾으시였다.

전방감시소에서 전투근무를 서고있는 병사들의 솜옷의 두께도 헤아려보시고 바늘구멍으로 바람이 새들지 않도록 누빈솜옷이 아니라 누비지 않은 솜동복을 공급해주도록 육친의 정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믿음과 사랑으로 전군을 하나의 동지부대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인민군병사들은 불사신의 용사로, 사회주의조국의 견결한 수호자로 억세게 자라났다.

병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선군령장으로 높이 모시여 더욱 뜨겁게 안겨지고있다.

중대병실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1(2012)년 2월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의 비행훈련성과를 축하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6월

우리가 믿을것은 대포나 로케트를 비롯한 그 어떤 현대식 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며 병사들을 위해 지휘관도 있고 최고사령관도 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을 혁명전우, 혁명동지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찾으시는 부대들과 가시는 초소들마다에서 먼저 병사들부터 만나주시고 그들의 생활조건을 세심히 료해하시고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군인들의 심정도 헤아려 그들을 한명한명 자신의 곁에 세우고 오랜 시간에 걸쳐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세기와 년대를 이어 끝없이 이어지는 병사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속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이다.

글 김정

위대한 선군령장들의 품속에서 인민군군인들은 일당백의 용사들로 억세게 자라났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

고귀한 한생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생애였다.

김 일 성

올해 4월 21일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의 탄생 12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녀사께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를 반대하는 애국정신을 지니시고 한생을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에 바치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과 한가정을 이루신 녀사께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시면서 혁명의 원대한 뜻을 더욱 가슴깊이 체득하시고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을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시였을뿐아니라 통신련락과 무기운반 등 어려운 사업도 맡아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자제분들을 열렬한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아버님의 뜻을 이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업을 적극 받들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와 방조밑에 녀사께서는 주체15(1926)년 12월 조선에서 첫 주체형의 혁명적녀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를 무으시고 광범한 녀성들을 계몽각성시켜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하신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방조하시고 수령님께서 창간하신 《새날》신문을 배포하시였을뿐아니라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기운반과 조직의 비밀련락을 맡아 수행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위대한 수령님께 넘겨주시여 총대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군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첫 무장대오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실 때에는 병약하신 몸으로 부녀회원들을 이끄시고 군복을 만드시였으며 자신께서는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군량미를 마련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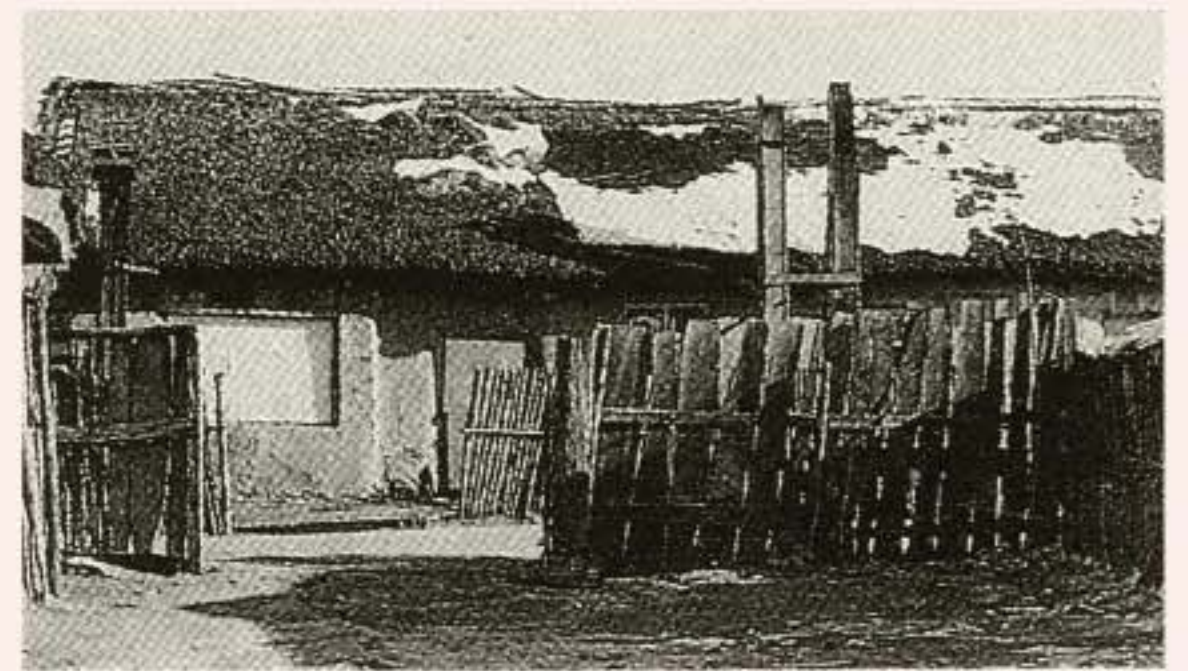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1(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시고 만국로동계급의 전투적명절인 5월 1일 안도현성에서 열병행진을 진행한 다음 대오를 이끌고 소사하 토기점골로 돌아왔을 때 녀사께서는 앓는 몸이였지만 토기점골등판에까지 나오시여 유격대원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면서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이제는 됐다, 왜놈들을 치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에 하신 강반석녀사의 말씀에는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총을 잡아야 하며 일단 총을 잡았으면 혁명의 길에서 다진 마음 변치말고 끝까지 싸워 목적한바를 기어이 이룩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가정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집근심보다 혁명을 먼저 생각하신 어머님의 숭고한 혁명세계를 가슴깊이 절감하시며 항일무장투쟁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선군혁명의 길을 꿋꿋이 헤쳐나가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였다.

부강번영하는 나라를 그처럼 바라시던 강반석녀사의 념원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현실로 꽃펴났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더욱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글 김현희

강반석녀사께서 탄생하신 칠골생가

강반석녀사께서 반일부녀회사업을 지도하시던 집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

새 전략무기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2월

조선에서는 지난 2월 12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 전략무기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개발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시험발사날자를 몸소 정해주시였으며 그 준비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발사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을 장쾌하게 터뜨리며 《북극성-2》형이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을 향해 날아올랐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의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거리대신 고도를 높이는 고각발사방식으로 진행되였다.

강용한 조선인민의 자주적힘, 불굴의 기개를 싣고 수중에서뿐아니라 지상에서도 멋지게 만리대공으로 치솟는 강위력한 핵전략무기인 《북극성》탄도탄의 자랑찬 비행운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성공의 기쁨을 금치 못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울려퍼진 장엄한 불뢰성은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탄생 75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가장 깨끗한 애국충정의 선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새 전략무기시험발사에서의 완전성공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 불패의 군력을 가진 높은 민족적긍지와 크나큰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글 김태현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12월

원산구두공장에서 생산한 《매봉산》표 신발제품들은 인민들이 선호하고 애호하며 먼저 찾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더 많은 명제품, 명상품을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원산구두공장에서 새시대 조선의 기상인 만리마를 탄 기세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인민들의 신발문제에 그토록 마음쓰시였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새겨진 주체98(2009)년 2월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 공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를 받으며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신발생산기지로 전변되여 전국에 소문나게 되였다.

자기들의 일터에 대한 커다란 긍지를 안고 사출작업반과 갑피직장, 제화직장 등 공장안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매봉산》구두를 명제품, 명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창조적노력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신발생산의 경량화를 완전히 실현한 토대우에서 공장의 일군들은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기술자들은 빠른 시일안에 통합생산체계를 완성하고 접착제의 국산화와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고있다. 도안가들은 신발설계에 첨단과학기술을 연구도입하여 사람들의 기호와 미감, 체질과 나이, 계절적특성에 맞는 신발형태도안들을 더 많이 창작하고있다.

종업원수의 근 절반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여러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과학기술수준을 높여가고있으며 매달마다 진행되는 제품품평회에 모든 로동자들이 참가하고있다.

하여 지금 원산구두공장에서 끊임없이 생산되여나오는 맵시있고 가벼우면서도 든든한 《매봉산》구두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계속 높아가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김필

자체의 힘으로 여러가지 능률높은 설비들을 창안도입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인기있는 제품으로

비단실생산기지로 널리 알려진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지난해 12월 능력이 큰 현대적인 이불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인민들의 기호와 정서에 맞는 부드럽고 가벼운 명주솜이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이불들을 생산하고있다.

프로그람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비단천우에 아름다운 수를 새겨가는 자수기며 몇초동안에 두툼한 이불을 멋지게 누벼나가는 다침이불누빔기, 넓은 재단탁우를 연방 오가며 비단천을 규모있게 펼쳐가는 연단기를 비롯하여 생산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비단천과 명주솜 등 이불생산에 리용되는 자재는 모두 박천견직공장과 녕변견직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것이다.

이불들의 색갈과 무늬는 조선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종류도 봄가을이불, 여름이불, 겨울이불, 결혼식이불, 아동이불, 침대깔개 등 여러가지이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갖가지 이불들은 가벼우면서도 포근하여 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글 리명국

인민들의 기호와 정서에 맞는 여러가지 종류의 질좋은 이불들이 생산되고있다.

공업화, 과학화가 실현된 류경김치공장

조선민족의 전통음식으로서 세계 5대건강식품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는 김치에 대한 수요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는 속에 지난 1월 평양시 교외에 있는 류경김치공장이 현대적인 김치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김치와 장절임, 버섯가공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지난해 짧은 기간에 개작공사를 끝냄으로써 모든 생산공정을 공업화, 과학화하였다.

공장에는 생산조직과 경영활동, 품질관리의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였다.

배추와 무우를 지하에서 승강기와 수직콘베아를 통하여 공급하며 배추자동공급기, 무우자동공급기, 깍두기절단기, 용기세척기, 양념공급기, 진공포장기 등이 갖추어짐으로써 운반과 절단, 절임, 세척 등 생산공정들에서 손로동을 극력 줄이였다.

고도로 자동화, 로보트화된 공장의 설비들은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연구사들과 보통강철제일용품공장 로동계급이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설계하고 제작설치한것이다.

공장의 생산현장들은 무균화, 무진화되고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생산공정과 복도가 격폐되였으며 발효실, 숙성실, 포장실을 완성공정과 하나로 잇닿아 배치하였을뿐아니라 김치종합분석기 등 첨단수준의 분석설비들을 갖춘 실험분석실도 꾸려져있다.

통배추김치, 석박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어린이영양김치, 콩나물김치, 오이김치, 깍두기 등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류와 장절임류, 식혜류들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사진 안철원 글 박병훈

자동화, 로보트화,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공장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따뜻한 보금자리, 훌륭한 배움터

-평양초등학원을 찾아서-

모든 생활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는 기숙사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원아들

지난 2월 조선로동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초등학원이 원아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로 세상이 보란듯이 훌륭히 일떠섰다.

평양중등학원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서있는 평양초등학원은 원아들의 동심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꾸려져 마치도 동화세계를 방불케 한다.

연건축면적이 수천여㎡에 달하는 학원은 교사, 기숙사, 야외체육장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학원의 모든 교실들은 초등교육단위의 특성에 맞게 다기능화, 정보화되였으며 각종 교구비품들도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 소년단실, 자연실, 음악 및 춤보급실 등도 원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조직과 집단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주며 일반기초지식과 체육예능교육을 충분히 줄수 있도록 꾸려져있다.

또한 복도에는 동화적이면서도 직관성과 과학성, 생동성이 보장된 여러가지 그림 등을 붙여놓아 모든 공간이 지식홀, 상식홀로 되여있다.

침실, 식사실, 리발실, 치료실 등이 갖추어진 기숙사는 원아들의 동심에 맞으면서도 그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꾸려져있다.

새로 건설된 학원에서 원아들은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나가는 역군이 될 포부와 꿈을 안고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고있다.

평양초등학원의 해빛밝은 교정에 넘쳐나는 아이들의 글소리, 노래소리는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소리로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사진, 글 최원철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미래로 준비해간다.

개건된 김일성경기장

조선에서 체육시설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되여 체육발전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는 속에 지난해 10월 **김일성**경기장이 대중체육봉사기지로 새롭게 개건되였다.

4만여석의 관람석을 가진 경기장에는 인공잔디를 입힌 축구장, 선수입장홀 그리고 국제축구련맹사무실과 심판원실, 감독실, 기자회견실, 약물검사실, 치료실을 비롯한 체육 및 문화후생시설들과 봉사망들이 갖추어져있다.

경기장에 새로 입힌 탄성이 좋고 부드러운 인공잔디와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꾸려진 선수입장홀은 그 실효성과 편리성으로 하여 누구나 좋아하고있다.

새로 꾸려진 선수휴계실과 감독실, 심판원실 등 매 방들에는 선수들과 경기보장성원들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아름다운 색조화를 이루며 경기장을 꽉 채우고있는 관람석들은 종전의 의자들에 비해 크고 등받이도 있어 경기관람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경기시간과 날자, 경기성적과 경기대전팀, 선수들의 이름과 경기일정들도 실시간적으로 현시할수 있는 전광장치가 결합되여있는 종합안내도는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보장할수 있게 특색있게 설치되여있다.

경기장에서는 국제국내체육경기는 물론 국가적인 정치문화행사도 진행하며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다채로운 체육활동 및 문화정서생활도 마음껏 누리고있다.

사진, 글 김윤혁

체육 및 문화후생시설들과 봉사망들이 갖추어져있는 경기장에서는 국제국내체육경기와 국가적인 정치문화행사들도 진행하고있다.

동림농민휴양소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기념하여

조선에서는 국가의 혜택속에 명승지를 비롯하여 경치좋은 곳들에 휴양소, 정양소들이 건설되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휴식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난해 4월에는 평안북도 동림군에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을 위한 농민휴양소가 새로 일떠섰다.

동림군에서 제일 높은 문수산과 잇닿아있는 룡간바위골의 양지바른 곳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농민휴양소에는 휴양각과 공원, 물놀이장, 덕수터, 휴식터, 뽀트장 등 휴양생활에 필요한 봉사 및 문화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농민휴양소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운영되고 있다.

휴양기간 농업근로자들은 탁구와 배구 등 다채로운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을 하면서 즐겁게 보낸다.

특히 겨울철휴양은 스케트타기로 특색있고 여름철휴양은 맑은 물이 차넘치는 물놀이장과 덕수터, 뽀트장에서의 행복에 겨운 휴양생들의 모습이 이채를 띤다.

또한 휴양생들은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동림폭포도 참관하며 덕수도 맞고 경치도 부감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도 단련하고있다.

한편 휴양소에 꾸려진 도서실에서 농업과학기술도서들을 열람하고 서로의 농사경험도 나눈다.

휴양기간 온갖 편의를 도모해주고 휴양소에 꾸려진 온실과 축사를 비롯한 후방기지들에서 자체로 생산한 남새와 고기, 알 등으로 끼마다 구미에 맞는 음식들을 성의껏 차려주는 휴양소 종업원들의 친절한 봉사는 휴양생들을 더욱 기쁘게 해주고있다.

국가의 혜택속에 15일간의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낸 농업근로자들은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해갈 드높은 열의들을 안고 휴양소를 나서고있다.

사진 리일명 글 박영조

법운암의 본전

력사유적

룡악산의 법운암

평양시의 교외에 경치가 아름다워 《평양의 금강산》으로 불리우는 룡악산에는 고구려(B. C. 277년-A. D. 668년)시기에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시기에 고쳐지은 오랜 절인 법운암이 있다.

이 절을 고구려때에 세웠다는것은 법운암비문과 그밖의 기록들이 말해주고있다.

그리고 법운암밑단을 쌓은 돌을 다듬은 수법이 고구려시기의 성돌을 다듬은것과 같으며 이 부근에서 고구려의 수기와막새들이 발견된것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깎아지른듯 한 높은 벼랑을 배경으로 본전과 라한전, 산신각, 칠성각, 승방 등 다섯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법운암은 룡악산의 지형조건에 알맞게 배치되여있다.

법운암의 본전은 높은 밑단우에 세운 정면 5간(10. 27m), 측면 3간(6. 2m)으로 되였는데 2익공두공을 얹은 14개의 흘림기둥이 합각지붕을 떠받들고있다.

집안에는 마루방과 온돌방을 꾸렸다. 제공은 짧은 편이며 두공구조는 섬세하고 세련되였다.

특이하게 정면과 측면의 앞쪽 한간은 겹처마에 2익공바깥도리식으로 하고 나머지 측면 뒤쪽 2간과 후면을 홑처마에 단익공주도리식으로 하였다.

대들보밑에는 초엽을 달아 보기에도 좋다.

선조들의 높은 건축술이 깃들어있는것으로 하여 법운암은 오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국보로 보존관리되고있다.

사진, 글 안철원

독성각

칠성각

산신각

낸곳 : © 조선화보사 2017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김정철 13606—781115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내 나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naenara. com. kp 전자우편(E - mail) : flph@star - co.net.kp

뒤표지: 평양의 밤하늘에 경축의 축포가 오른다.
사진 리명국